

## [제3차] [예술인복지위원회] 공정예술생태 소위원회 회의록

20. 12. 28.(월) /한국예술인복지재단

### □ 회의 개요

- (일시·장소) 2020. 12. 21(월), 14:00~16:00, 비대면 회의
- (회의내용)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, 사업현황 보고 및 추진일정 협의 등
- (회의참석) 총 9명 ※ 재적인원 6명
  - (위원장) 박소현 위원장
  - (위 원) (위촉) 하장호, 오경미, 박경신, 성수현 위원
  - (배 석) 김석진 사회보장부장, 곽은미 권리보장팀장, 정지은 대리, 이단비 변호사

### □ 회의 내용

#### 1. 주요 논의사항

-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업무처리 매뉴얼 검토
-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업무처리 매뉴얼 개선점 논의

#### 2. 주요 발언

-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논의
  - 법 제정 후, 이를 근거로 내규를 제정해야 죄형법정주의 위반 없이 법적 구속력 발생가능
  - 내규 제정 시,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범죄 유형 간 합당한 제재 마련 필요
-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의 법적 구속력 해결을 가정 후 논의
  - 현장에서 재단 내부 제재를 요청하는 수요가 높으므로 이에 대해 재단 내부 매뉴얼로써 어떻게 작동할 건지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필요
  - 사실조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성비 등에 대한 명료한 내규를 제정할 필요 존재
  - 신고접수단계에서 타기관과 협조 가능성 검토 필요 및 익명성 보장 및 비밀유지 필요
-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의 법적 문제 발생에 대한 논의
  - 죄형법정주의, 무죄추정의 원칙, 이중처벌금지 원칙, 과잉금지 원칙 위반

가능성 존재

-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필요
- 성희롱성폭력 매뉴얼 제작 방향성에 대한 논의
  - 재단에서 매뉴얼을 만들 때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비가역적 피해에 대한 회복을 중점으로 둘 필요 존재
- 성희롱 특이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
  - 매뉴얼 중 문화예술계 성희롱 특이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에 대한 전문가 검토 후 적절한 예시 추가 필요